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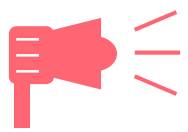


책 나무

| 아산시립도서관 소식지
| 2020년 5월호

“
좋은 책과의 만남이
곧 **사랑**입니다.
”





도서관 뉴스

■ 아산시립도서관 도서대출 정상화

- '도서 대출 2배로 서비스', '대출 정지 면제 서비스' 진행

■ 북 스루(Book through) 확대 운영

- 시립도서관 5개소(중앙, 배방, 송곡, 탕정, 둔포도서관)로 확대

■ 핑퐁! 책배달 서비스 운영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무료 택배 서비스' 제공

■ 제1회 충남독서대전 아이디어 공모전

- '공독', '공감', '공유' 분야의 독서대전 아이디어 모집

■ 포스트 코로나 생활독서 프로그램 운영

-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도서관 이용 시 준수 사항

운영시간 화~토요일 09:00~20:00, 일요일 09:00~18:00

1. 도서관 입장 시 '도서관 방문록' 작성 및 발열체크 하기
2.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3. 도서관 내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필수
4. 자료실 이용 시 2M 거리두기 준수

※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북스루(Book through) 확대실시

시행도서관 - 시립도서관 5개관(중양, 배방, 둔포, 송곡, 탕정온샘도서관)

이용시간 - 화~금 14:00~18:00
※ 토, 일,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음

대출장소 - 각 도서관 주차장

이용방법 - 도서관 계정 메일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도서명, 등록번호 작성해 신청
→ 문자안내 도착 후 24시간 이내 신분증 및 회원증 지참 후 도서관 주차장 방문
→ 각 도서관 반납함 혹은 무인 반납기에 반납

e메일 주소 및 문의전화

도서관	e메일 주소	문의전화
중 양 도 서 관	asandrive041@naver.com	041-530-6634
송 곡 도 서 관	sgdrive041@naver.com	041-537-3953
배 방 도 서 관	bbdrive041@naver.com	041-537-3536
둔 포 도 서 관	dpdrive041@naver.com	041-536-8595
탕 정 온 샘 도 서 관	tjdrive041@naver.com	041-536-8741

대출반납 - 1인 3권(14일 이내)

주의사항 - 수령 문자 확인 후 지정된 주차장 장소에서 전화주세요.
- 북 드라이브 스루 이용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 수령 희망 도서관 소장 도서만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충남독서대전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기간 - 2020. 5. 1.(금) ~ 5. 15.(금)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 주제: "한번 더(THE) 책"
- 슬로건: "더큰 아산, 책으로 세상을 [품:다]"

모집분야

구 분	상세 내용
공 독 (함께 읽고)	일상적인 독서문화프로그램
공 감 (함께 느끼고)	공연, 행사, 전시, 체험 등
공 유 (함께 나누자)	아산시 특성을 살린 독서 콘텐츠, 학술, 토론

시상규모

구 분	시상내역
최우수상(1명)	아산사랑상품권 50만원
우수상(1명)	아산사랑상품권 30만원
장려상(3명)	아산사랑상품권 각 10만원

문의사항

- 아산시중앙도서관 독서진흥팀 (☎ 041-530-6623)
-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ascl.asan.go.kr>

▶ 포스트 코로나 생활독서 프로그램

책 속 주인공 만들기

일 시 2020. 5. 6.(수) ~ 5. 29.(금)

대 상 아산시민(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활용도서

- 『수박이 먹고 싶으면』 / 김장성 글, 유리 그림 / 이야기꽃 펴냄
- 『이까짓 것!』 / 박현주 지음 / 이야기꽃 펴냄

참여방법

1.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ascl.asan.go.kr)에서 온라인 수강신청 하기
2.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 영상 시청(문화강좌/행사 ▶ 온라인프로그램)
3. 가족이 함께 온라인 독후활동 참여(문화강좌/행사 ▶ 온라인프로그램 ▶ 참여게시판)
4. (온라인 수강신청자는) 꾸러미 만들기 활동 후 사진 등록

접수방법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강좌/행사 ▶ 특별프로그램

*** 만들기 꾸러미는 온라인 수강신청자에 한해 배부합니다.**

문의 041)530-6625

온라인 원화 전시

전시도서

- 『해치와 괴물 사형제』 / 정하섭 글, 한병호 그림 / 길벗어린이 펴냄

전시기간 2020. 5. 6.(수) ~ 5. 30.(토)

참여방법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ascl.asan.go.kr) ▶ 문화강좌/행사 ▶ 온라인프로그램

내 용 동화적 상상력으로 해태라고 불리는 해의 신 해치와 괴물 사형제 이야기

*** 저작권 문제로 부분 전시 합니다.**

문의 041)530-6647



세계 도서관 탐방

세계 도서관 탐방 - 핀란드 탐페레시립도서관



탐페레는 핀란드 남서부 피르칸마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탐페레 시는 헬싱키 이전에 핀란드의 수도이어서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탐페레시립도서관은 탐페레의 랜드마크 중 한 곳으로, 탐페레 중심부인 헤멘르이스토 공원에 있으며 피르칸마 지역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는 도서관입니다.

핀란드의 겨울에는 구름이 잔뜩 낀 온통 회색의 날이 대부분입니다. 무료하고 지루한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음악활동입니다. 도서관에서도 핀란드인의 음악 사랑을 엿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음악 관련 도서와 잡지를 읽고, CD 등의 앨범을 듣고 즐기며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탐페레시립도서관은 이러한 이용자에 요구에 따라 다양한 음악 자료와 함께 악기를 대여하여 녹음 활동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자가 라이브 음악 및 라이브러리 자료를 제공하는 '멧소라이브'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공연자의 연주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책, 영화, 기록에 대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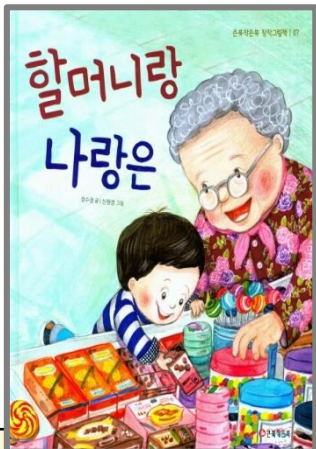
탐페레시립도서관과 같이 봉사 지역의 환경과 이용자의 요구에 발맞춰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 도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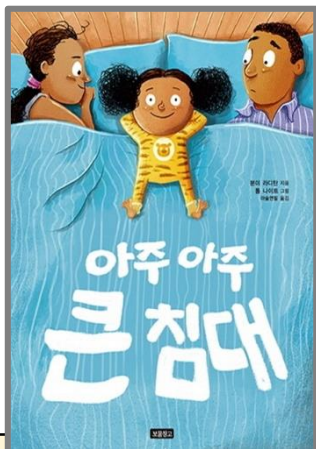
5월 추천도서



할머니랑 나랑은

정수정 지음
큰북작은북 펴냄

할머니가 오랜만에 집에 오신다고 하자 아이는 좋아 폴짝폴짝 뛰 정도다. 할머니가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얄전하게 굴라는 엄마 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이와 할머니는 비슷한 게 많다. 아이는 자전거, 할머니는 실버카로 각각 전용차가 있다. 둘 다 달콤한 음식을 좋아해 전용차를 나란히 밀고 나가 마트에서 사탕과 초콜릿도 사 온다. 매사에 궁금한 것도 많고 좌충우돌 실수도 많다는 것도 똑같다. 할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인 줄 알았다는 아이의 천진함,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는 사진첩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는 가족의 따뜻함이 정겹게 묻어나는 그림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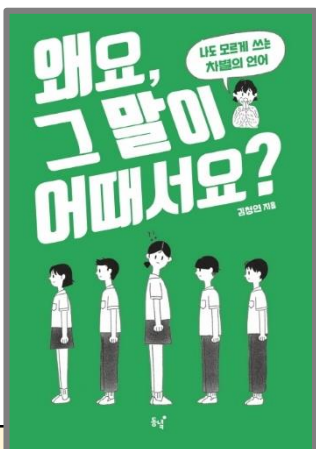


아주아주 큰 침대

분미 라디탄 지음
보물창고 펴냄

부모의 침대에서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은 아이. 침대에서 물러나기 싫어하는 아빠를 감쪽한 아이디어로 설득한다. 아이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아빠를 위한 간이 침대를 마련하는 것. 셋이 함께 자다, 아빠가 잠들고 나면 간이 침대로 옮겨 주겠다고 제안한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면서도 아빠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특하다. 아이의 생각이 참신하고 순수해서 책을 읽는 내내 미소 짓게 된다.

혼자 잠자리에 들기 싫어하는 아이를 독립시키는 과정은 부모로서 어려운 일이다. 잠자리 독립을 거부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편 아이의 설득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이다.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김청연 지음
동녘 펴냄

요즘 언어 문화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특히 인터넷과 미디어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마저 생긴다. 청소년의 언어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차별, 혐오, 고정관념, 편견이 담긴 말이다. 일상에서 별 의식없이 '그냥', '재미있어서' 라는 이유로 습관처럼 쓰이는 말들에 숨은 차별 표현을 하나씩 짚어본다. 단어 하나에 숨은 차별을 읽다 보면 나이, 장애, 인종, 지역, 학벌, 직업 등으로 타인을 차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혹시라도 남에게 칼이 되는 차별의 언어를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반성해 볼 일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추천 도서



국립중앙도서관

5월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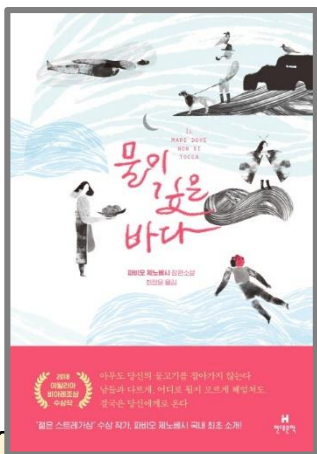
약한 게 아니라 아팠던 것이다

권순재 지음
생각의길 펴냄

우리는 하루하루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며 무기력해지고, 예기치 않은 시련 앞에서 홀로 선 고독의 순간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영화 속 인물들도 우리처럼 방황하지만 경험과 사유를 통해 각자만의 방식을 찾아간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다양한 영화 주인공들의 마음과 감정을 살피고 심리학 기재를 통해 설명해줌으로써 독자 자신의 내면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당신의 아픔은 틀린 것이 아니며 그 감정들을 표현하여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순간, 지금 이곳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해 묻어두었던 두려움과 슬픔들을 천천히 마주보고 존재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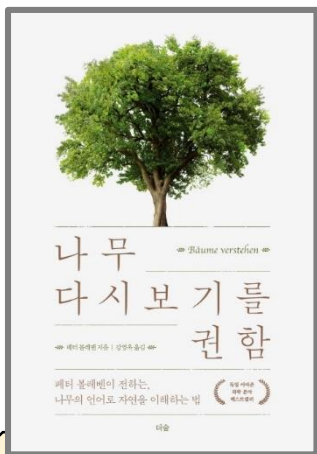


물이 깊은 바다

파비오 제노베시 지음
현대문학 펴냄

2018년 이탈리아 문학상인 비아레조상을 수상한 이 책은 작가의 경험이 투영된 자전적 소설로 주인공이 사춘기 소년으로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섯 살 파비오에게는 여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노총각 할아버지가 열 명이나 있는데 학교에 입학한 첫날, 마흔 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면 할아버지들처럼 이상한 사람들로 변해버린다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에 대해 알게 된다.

조금은 남다른 가족이지만 파비오의 곁에는 항상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아빠, 파비오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아빠, 엄마를 위해 매일 책을 읽어주고, 컨트리클럽에 가서 일을 하는 파비오의 모습을 통해 나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파비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나무 다시보기를 권함

페터 볼레벤 지음
더숲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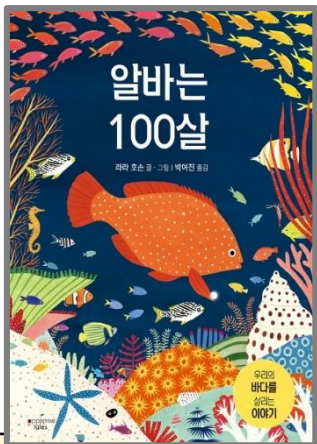
학자들에 따르면 아카시아 나무는 초식동물들이 나뭇잎을 먹기 시작하면 나무에서 쓴맛 나는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이 물질이 주변 나무로 퍼져 초식동물을 이동하게 만든다. 동물에 비해 거의 움직임이 없는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이처럼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나무 역시 위험 상황에서 서로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저자는 나무의 변화를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나무의 탄생, 성장, 죽음을 둘러싼 숲 생태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나무 표면의 상처와 틈, 힘없는 나뭇가지에도 나무의 세월이 녹아있다. 숲의 상생을 위해 나무가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열어보자.



신간 추천 도서

아 동

추천사서 : 임효진



알바는 100살

라라 호손 지음
애플트리태일즈 펴냄

이 책은 100살난 물고기 알바에 관한 이야기이다. 알바의 고향은 수많은 생물들과 알록달록한 색으로 가득한 곳, 산호 도시이다. 하지만 알바의 나이가 들수록 산호 도시에 바다 쓰레기가 밀려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 고향을 되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된다.

바다 쓰레기로 자연을 잃고 다시 아름다운 바다를 되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바다까지 파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이에게는 무거운 주제이지만 귀엽고 화사한 색감과 희망적인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마음 #리듬

청 소 년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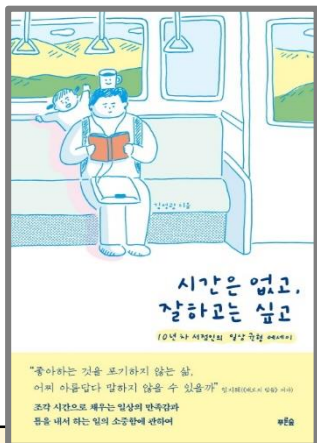
제니 재거펠드 지음
리듬문고 펴냄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는 엄마가 자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곱가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엄마의 실수를 교훈 삼아 엄마와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슬픔을 받아들이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살아남아 행복해지고 싶어 고군분투하는 사샤의 모습에서 사춘기 소녀의 명랑함과 엉뚱함을 엿볼 수 있다가도 사샤가 애써 부정해왔던 슬픔을 인정하는 장면에서는 아픔을 공감하게 된다. 가장 비극적인 일을 겪은 후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웃음과 눈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펼쳐진다.

#슬픔 #눈물 #극복

성 인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싶고**

김성광 지음
푸른숲 펴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직장 안팎에서 '워라밸'을 권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취미는 커녕 잠깐 숨돌리며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할 틈조차 내주기 쉽지 않다.

'워라밸 시대', 일, 가족, 그리고 나라는 삶의 삼각대 안에서 적절한 균형에 관한 고민이 깊은 이 때 저자는 일과 육아로 꽉 채워진 하루의 틈 사이사이 조각 시간을 활용해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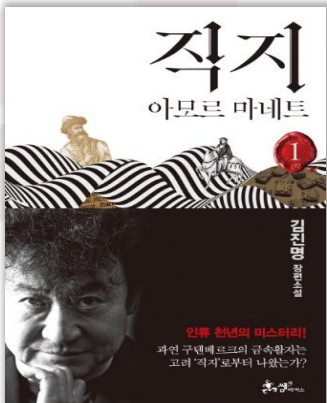
이 책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모델이지 않을까?

#워라밸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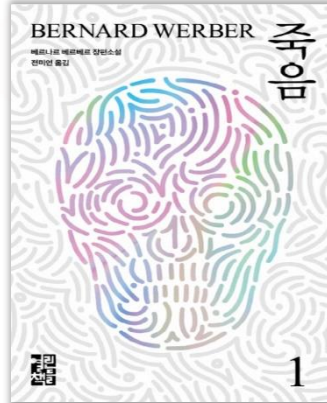
2020년 1분기 아산시민이 가장 사랑한 책 20선

[집계기간 2020.1.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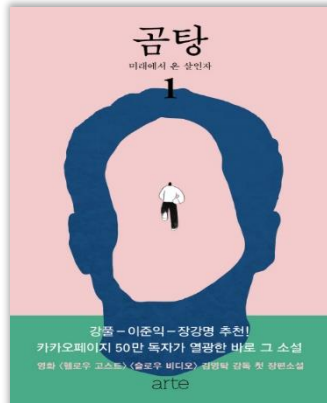
성인·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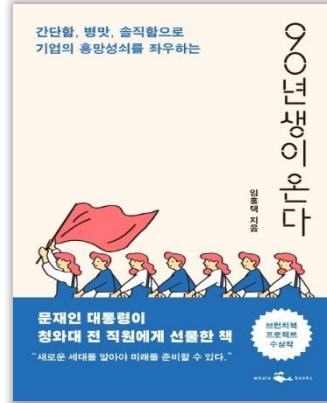
1 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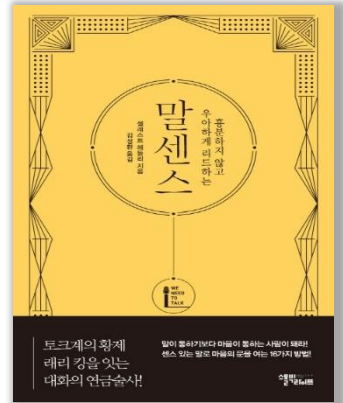
2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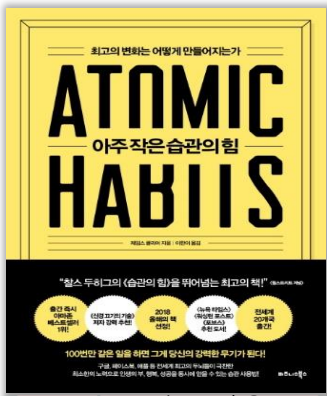
3 곰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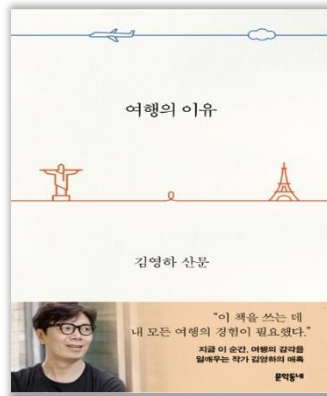
4 90년생이 온다



5 말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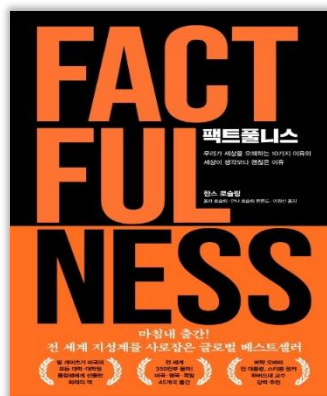
6 아주 작은 습관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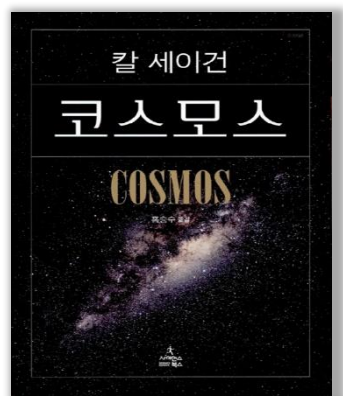
7 여행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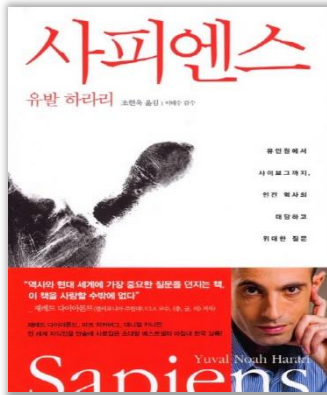
8 진이, 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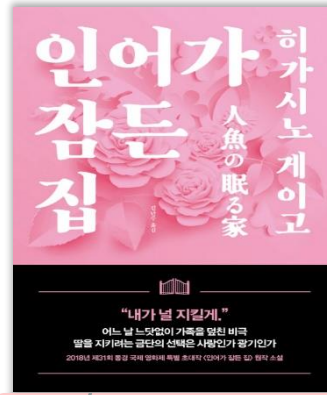
9 팩트폴니스



10 코스모스



11 사피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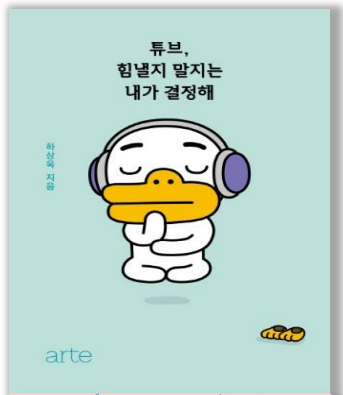
12 인어가 잠든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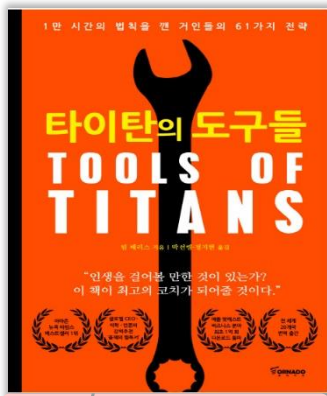
13 사일런트 페이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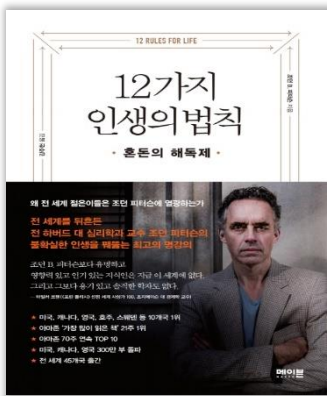
14 두근두근 내 인생



15 튜브, 힘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16 타이탄의 도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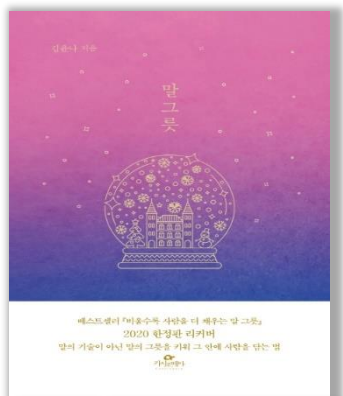
17 12가지 인생의 법칙



18 봉제인형 살인사건



19 까칠한 재석이가 결심했다



20 말그릇

아산시립도서관과 아산시서점협동조합이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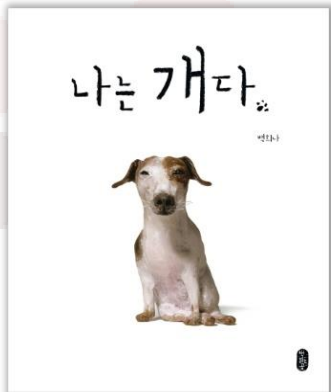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 교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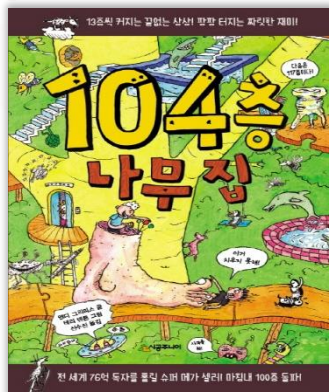
2020년 1분기 아산시민이 가장 사랑한 책 20선

[집계기간 2020.1.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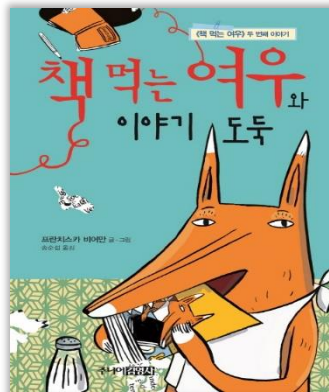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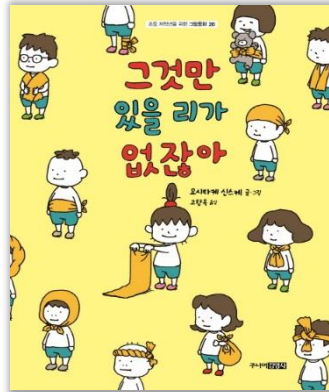
1 / 나는 개다



2 / 104층 나무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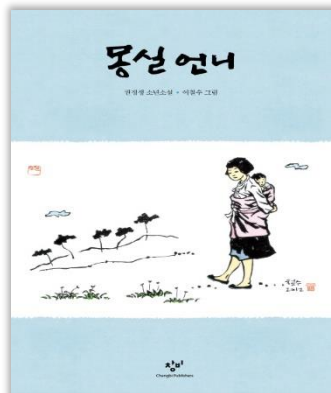
3 / 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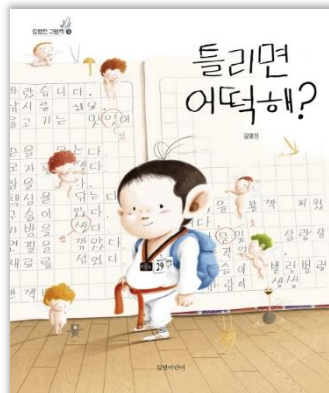
4 / 그것만 있을 리가 없잖아



5 / 먹어도 먹어도 즐지 않는 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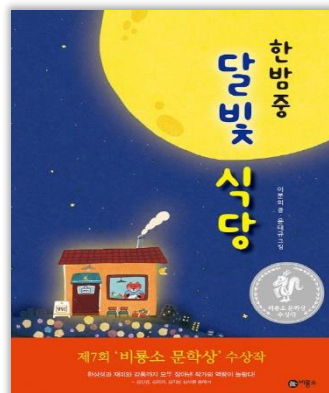
6 / 몽실 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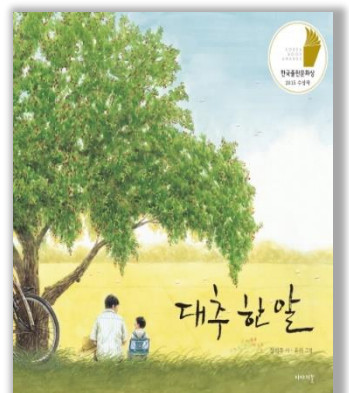
7 / 틀리면 어떡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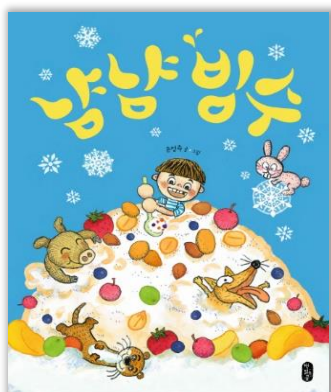
8 / 멋쟁이 낸시와 아기 고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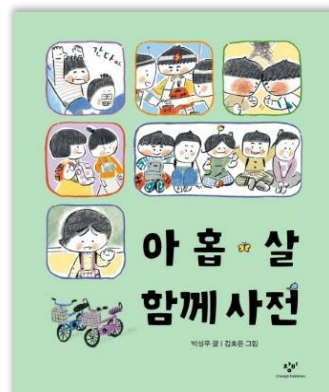
9 / 한밤중 달빛 식당



10 / 대추 한 알



11 / 남남빙수



12 / 아홉 살 함께 사전



13 / 화요일의 두꺼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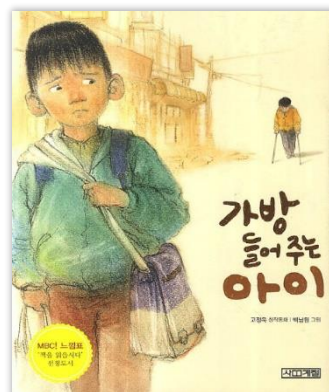
14 / 수상한 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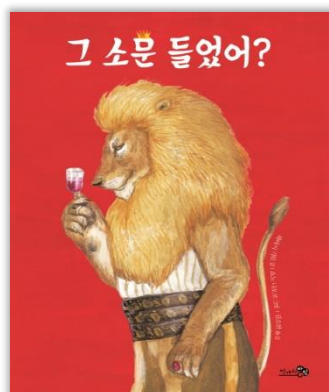
15 / 싸워도 돼요?



16 / 팔빙수의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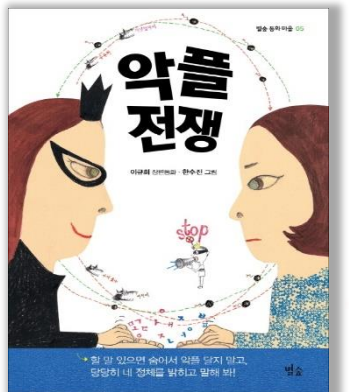
17 / 가방 들어주는 아이



18 / 그 소문 들었어?



19 /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두꺼비



20 / 악플 전쟁

아산시립도서관과 아산시서점협동조합이 함께 합니다

이미지 출처 : 교보문고





중앙도서관 사서가 준비한

북 큐레이션(Book Curation)

※ 매달 '중앙도서관' 자료실 별, 10~15권 이내 사서추천도서가 펼쳐집니다.

5월 주제 : 가정, 가족

▶ 선정사유 : 5월이 '가정의 달' 인 이유로 주제 선정

어린이자료실 ▶ 서가에서 빛나는 가족

추천사서 : 김원화



동생이 생긴 너에게

곧 동생이 태어날 준이는 "형아가 되는 거지?"를 엄마에게 자주 듣습니다. '형아'라는 낯선 말에 준이는 이런저런 모습의 다정한 형아를 떠올리지만 진짜 형아가 되는 날, 준이는 처음으로 큰 소외감에 직면합니다. 동생이 알밋고 질투가 나는 준이는 자신의 애착인형인 하늘이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엄마에게, 엄마에게서 준이에게 전해진 인형이라는 것을 깨닫고 큰 사랑을 느낍니다.

이처럼 준이의 이야기를 통해 동생이 생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모두 사랑으로 자란 아이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카사이 신페이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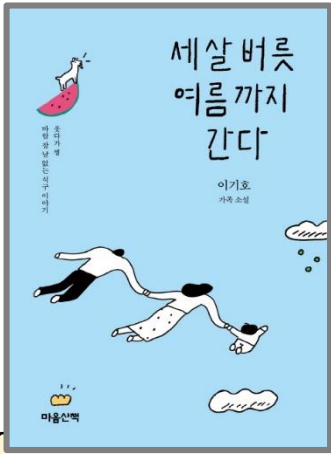
📖 천개의바람 펴냄

#동생 #질투 #사랑

번호	제목	지은이	출판사
1	언제까지나 나의 처음인 너에게	퍼트리샤 매클라클랜	청어람아이
2	사랑이 툭툭	정석영	밥북
3	할머니와 걷는 길	박보람	노란상상
4	아빠 무릎은 내 자리	나은경	킨더랜드
5	고집불통 내 동생	김헤리	아이세움
6	동생이 생긴 너에게	카사이 신페이	천개의바람
7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제주아이 특별한아이	봄의정원
8	누나에겐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	마르코 베레토니 카라라	한울림스페셜
9	내 가족과 다른 가족들	베라 티멘칙	꼬마이실
10	도대체 엄마 아빠는 왜 그럴까?	프랑수아즈 부세	파란자전거
11	가족의 가족	어린이통합교과연구회	상상의집

2층 자료실 ▶, 그래도 우리 가족

추천사서 : 윤정희



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이기호 지음
마음산책 펴냄

『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는 갈팡질팡 아빠와 터프한 엄마, 그리고 우다다다 세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는 온 식구의 유쾌한 성장을 그린 '가족소설'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족의 크고 작은 일상사, 이웃과 나눈 정, 다툼과 안타까움과 불만의 시간, 소소한 꿈까지 담아냈습니다. 우리는 44편의 이야기 속에서 웃고 우는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결국 모든 가족의 보편성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가족 #일상

번호	제목	지은이	출판사
1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금이	창비
2	가족입니까	김해원 외	바람의아이들
3	아주 특별하게 평범한 가족에 대하여	로빈 번웨이	상상의 힘
4	녹색 일기장	이경순	키다리
5	슬픔은 날개 달린 것	맥스 포터	문학동네
6	원 플러스 원 : 가족이라는 기적	조조 모예스	살림
7	바우네 가족이야기	손승휘	책이있는마을
8	가족의 온도	김석휘	청동거울
9	설이:김운경 장편소설	심윤경	한겨레
10	파도가 지나간 후	상드린 콜레트	현대문학
11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프레드릭 배크만	다산북스
12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사노 아키라	블루엘리펀트
13	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이기호	마음산책

3층 자료실 ▶ 가족의 탄생

추천사서 : 김재현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

✎ 히라마쓰 루이 지음

✎ 뜨인돌 펴냄

이 책의 저자는 안과의사입니다. 저자는 안과의사로서 많은 노인들을 진료하면서 고령자의 행동은 성격이나 치매 탓이 아니라 대부분 노화에 의한 신체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된 일임을 깨닫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오랫동안 축적한 연구와 경험이 압축되어 있는 이 책은 신체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루면서 적용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부모가 있는 자식을 포함해서 고령자를 상대하는 업무 종사자들에게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은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도서관 #변화

번호	제목	지은이	출판사
1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구요?!	우에노 지즈코 미나시타 기류	동녘
2	초솔로사회	아라카와 가즈히사	마일스톤
3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	히라마쓰 루이	뜨인돌
4	며느리 사표	영주	사이행성
5	엄마의 자존감 공부	김미경	21세기북스
6	루돌프 코는 정말 놀라운 코	고윤주	궁리
7	이번 생 육아는 처음입니다만	김도사, 최경일	미다스북스
8	미처 몰랐던 내 아이 마음 처방전	위영만	더블북코리아
9	말투를 바꿨더니 아이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정재영, 이영재	알에이치코리아
10	너무 사랑하지만 힘든 걸 어떡해	캐런 클라이먼	한문화

아산시립도서관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회원가입 안내

발급대상 | 아산시민 및 인접지역 주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산시,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예산군, 평택시인 사람)

구비서류 | 성 인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청소년 : 청소년증 /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어린이 : 부모동반(신분증지참)과 주민등록등본

*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사람 : 신분증과 재직(재학)증명서

step1

도서관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준회원으로
회원가입하기
(휴대폰인증 OR 아이핀인증)

step2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정회원 등록

step3

회원증 발급 후
도서관 서비스
이용가능

자료실 이용안내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중앙/송곡/배방/둔포/
탕정온샘

화~토 09:00~22:00 일요일 09:00~18:00

※ 부분 개관 기간 동안 화~토 09:00~20:00, 일요일 동일

어린이

화~일 09:00~18:00 ※ 2020. 5. 20.(수) 재개관

열람실 이용안내

중앙/송곡/배방
둔포

월~일 08:00~24:00

※ 부분 개관 기간 동안
열람실 미운영

화~일 09:00~24:00

공립 작은 도서관

법정 공휴일 휴관

인주 꿈꾸는 팽나무	월~금 13:00~19:00
배방 어린이 북카페	화~토 09:00~18:00
근로자 복지관/탕정	월-금 09:00~18:00 (탕정 : 토요일 자율 개방)
채움/이지마을/늘봄/ 다문화 가족	월~금 10:00~18:00

※ 부분 개관 기간 동안 **채움, 이지마을, 늘봄, 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 우선 운영

자료 대출/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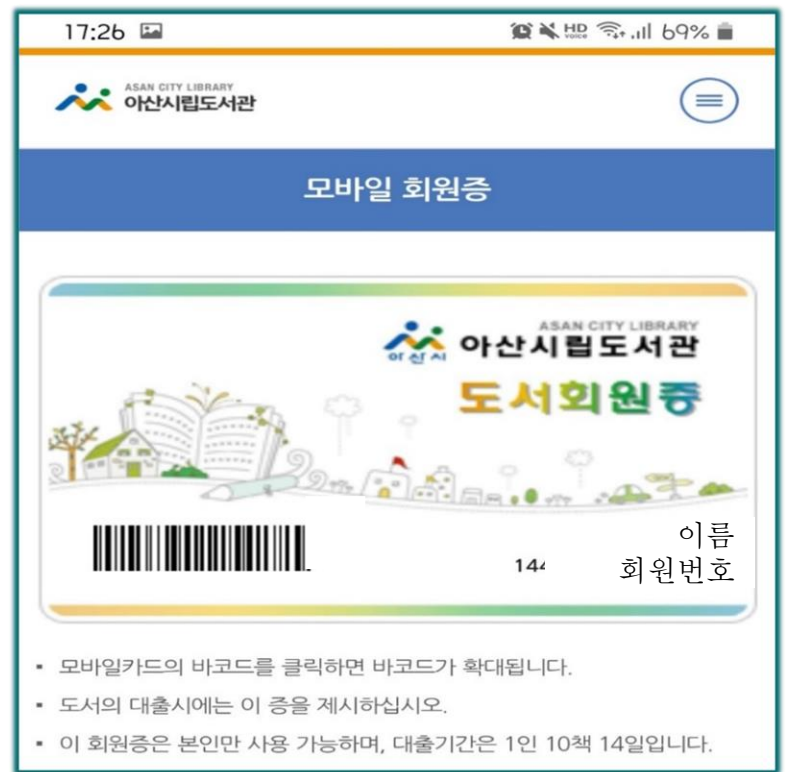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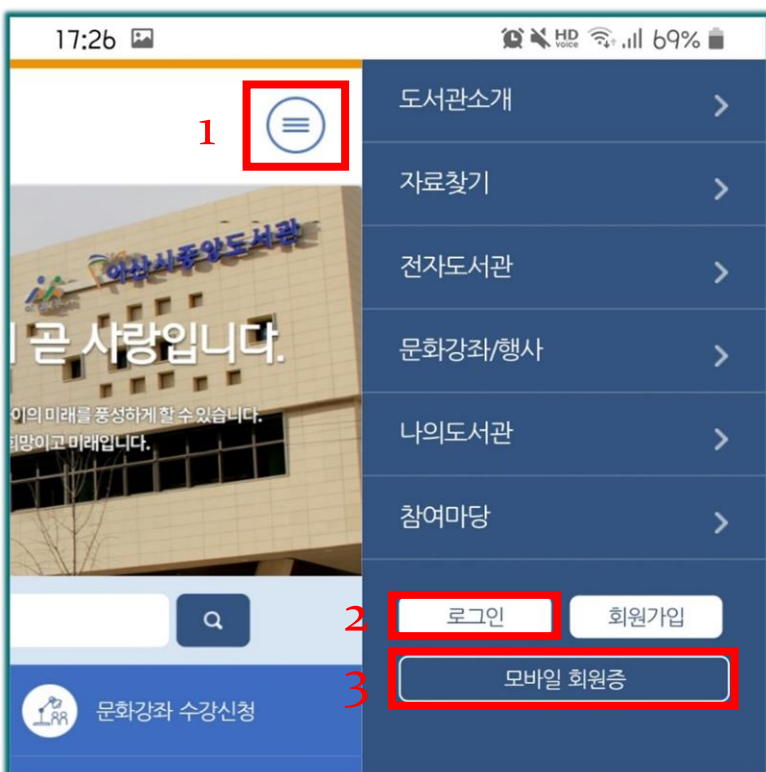
- 대출자격 | 아산시립도서관 회원증을 발급 받으신 분
- 대출권수 | 10권 (타 도서관 대출도서 포함 총10권)
- 대출기간 | 14일(연장없음)
- 도서연체 | 권수에 상관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
- 도서반납 | 아산시립도서관 6개관(중앙, 송곡, 배방, 둔포, 어린이, 탕정온샘)


* 자료실 이용시간 이후에는 **무인자가반납기** 또는 **반납함**을 이용해 주세요.

※ 5. 31.(일)까지 '연체 면제 서비스', '대출 2배로 서비스(20권)' 진행

모바일 회원증

모바일에서 '아산시립도서관' 검색 후,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이용



1.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 '메뉴 아이콘'  선택
2. 로그인 선택 후, 계정 접속
3. '모바일 회원증' 선택

기존 회원증과 동일하게 이용

도서관 이용 꿀팁

① 우리집 앞 도서관으로! 상호대차 서비스

읽고 싶은 책이 먼 도서관에 있을 경우, 가까운 도서관으로 책을 배달해 드립니다.



※ 상호대차신청도서 미 대출횟수가 3회 초과 시 30일 동안 상호대차 신청이 제한됩니다.

② 시간,장소 제한 NO! 온라인이라면 언제든지 OK! 전자도서관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독서 생활

대출자격 |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대출규정	콘텐츠 종류	대출가능 권수	대출기간	연장 횟수	예약가능 권수	예약우선 기간
	전자책	5권	7일	1회	2권	3일
	동영상북	3권	7일	1회	1권	1일

* 예약우선기간? 예약한 도서가 반납되었을 경우 대출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간

대출방법 | PC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e-Book
스마트폰 : 앱스토어 ▶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or 「에스24도서관」뷰어 설치

③ 이 책 읽고 싶어요! 희망도서신청



도서관 내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가능 권수 | 1인 월 3권(희망도서 구입 지양자료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도서관 이용 꿀팁

4 회원증 하나로 전국도서관을? **책이음 서비스**

하나의 회원증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서비스입니다.

신규
회원

홈페이지
준회원 가입
(본인인증)

도서관방문
(신규발급신청)

신분증과
구비서류 제시
및 본인확인

책이음
회원등록

회원증
신규발급

* 회원의 자격은 각 도서관 규정에 따릅니다.

기존
회원

홈페이지 책이음
전환 신청 후
도서관방문

기존 회원증과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책이음
회원전환

회원교체발급
(스티커발급)

* 책이음 서비스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독서회원 인증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5 미리미리 신청하자! **도서예약서비스**



'대출 중' 인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가 반납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도서
검색

대출상태
확인

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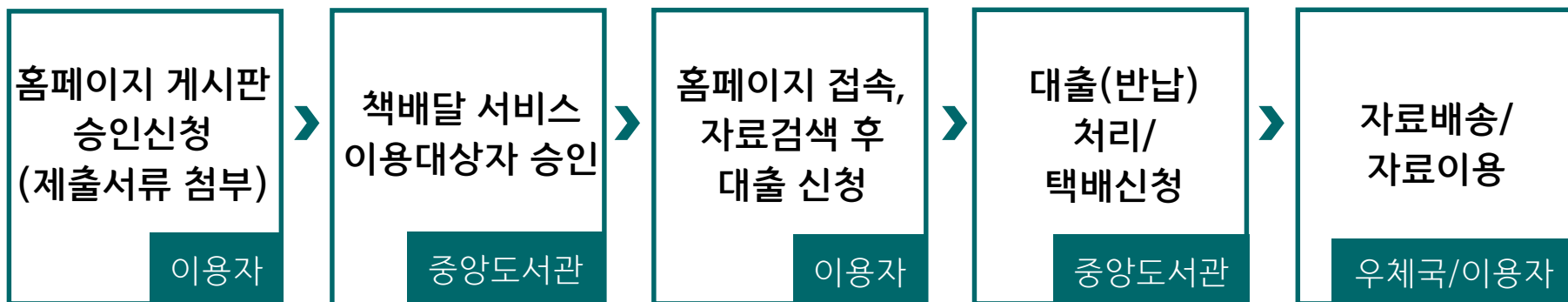
예약가능 권수 | 10권(1권당 예약가능 인원 : 최대 5명)

도서관 이용 꿀팁



6 도서관 책이 우리집으로 날아왔다 **핑퐁! 책배달 서비스(무료택배서비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도서택배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 28주 이상 임산부(산모수첩)
- 24개월 미만 아이 양육자(주민등록등본)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등본 또는 한부모 가정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장기요양등급 소지자
-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서대출 : 1인 1회 10권 20일간 / 1인당 월 2회

문의 : 041-530-6615, 6613

도서관 주소/연락처

▶ 중 앙	남부로 229	041)530-6610
▶ 송 곡	염치읍 송곡남길 82-4	041)537-3951
▶ 배 방	배방읍 모산로 140-12	041)537-3956
▶ 둔 포	둔포면 둔포중앙로 161번길 27-6	041)536-8595
▶ 어 린 이	시민로 500 3층	041)536-8616
▶ 탕 정 온 샘	탕정면 한내로 209	041)536-8740